

‘고교학점제’ 평가 어떻게 해야 하나...대학도 고심

석차등급 축소·절대평가 확대...“변별력 약해, 다른 평가 필요” ‘미래형 수능’ 서·논술형 도입 관건...정시·수시 비율 조정 변수

교육당국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들도 입학전형 설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수 인재 선별을 위해서는 새로 바뀌는 고교 체계와 대입 제도에 맞춰 입학전형을 손봐야 하지만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고교 수업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내부 의견수렴을 준비 중이다.

2025년부터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한다. 졸업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세부 과목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 학과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시모집에서 면접도 개선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올해부터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2024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교 체계가 바뀌면서 대학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졌다. 학생부교과전형 등에서 중요한 내신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현행 석차등급 중심 평가제가 축소된다. 1학년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에는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이 관계자는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변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내신 성적이 느슨해진 상태에서는 대학들도 다른 평가 방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사이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도입될 소위 ‘미래형 수능’을 관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미래형 수능이 어떤 모습을 할지에 따라 대학이 수능을 대입에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교육계에서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교육부가 오지선다형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논술형을 대안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또 다른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의 우수성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줄 세울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서·논술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결과가 잘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 비율 조정도 변수다.

수능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고교학점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학생들이 수능 대비에 맞춘 과목 선택에 나설 경우 고교학점제가 본래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다.

미래형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수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과목 다양화에 따른 학생 취미와 특기를 세밀하게 따져보기에는 일제고사식 수능보다는 수시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 역시 새로운 대입전형 설계가 중요해졌다. 어떻게 전형을 설계하는지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좌우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사립대 입시 관계자는 “어떤 학생을 뽑아서 특성화하고 학교를 발전시킬 것인지가 걸려 있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고교학점제 추진은 교육부가 대학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취업률 높인다” 광주대, ‘면접 특강 및 조별 모의 면접’ 프로그램 호응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운영하는 모의 면접 및 특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학교 백인관 강의실에서 간호학과 4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면접 특강 및 조별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면접 특강을 통해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면접 예절 ▲한방에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 노하우 등을 컨설팅받았다.

또 학생들은 조별 모의 면접, 면접 후 개인별 피드백 및 평가표 배포, 스피치 내용 1:1 지도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자신감을 높였다.

이에 앞서 광주대는 재학생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 NCS 특강, 입사지원서 및 면접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중등특수교육과, 2021학년도 교재교구 개발 경진대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중등특수교육과는 최근 수업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1학년도 교재교구 개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 특수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매체 제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기획 및 운영되는 행사이다. <광주여대 제공>

동강대 취창업센터 ‘꿈의 기업 탐방 경진대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체를 미리 탐방하고 취업 능력을 높였다.

동강대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양용준)는 최근 보건관 2층 율곡홀에서 ‘2021 꿈의 기업 탐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꿈의 기업 탐방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산업체를 직접 찾아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기업의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해 성공 취업으로 이끈다.

지난해에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뷰티미용과 학생 5명이 전원 희망 산업체에 취업하는 결실을 맺었다. 올해는 총 12개 팀 60명이 참가해 지난 4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기업 리스트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산업체 취업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를 받았다.

학생들은 ‘COVID-19’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두 달 여의 팀 과제 활동을 펼쳤고 팀 프레젠테이션 발표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 외식조리제빵과,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가 각각 금·은·동상을 차지했고, 수상자 15명에게는 상장 및 상품이 수여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멘토에게 길을 묻다’ 호남대, 23일 여성공학도 취업 향상 멘토링 특강

호남대학교 AI융합대학(학장 정영기)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학생 취업 향상을 위한 멘토링 특강 ‘멘토에게 길을 묻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특강은 AI융합대학 여교수들이 협업해 진행해온 여성 공학도 취업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여성 공학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온 성결대 최영미 교수를 초청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한국여성정보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특강에서 최영미 교수는 ‘여성공학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이드’를 주제로 여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또 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에는 AI융합대 여교수들도 모두 참여해 특강 후 여학생들의 멘토링을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I융합대 여학생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강은주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대생들이 취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및 여성 공학도로서의 강점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